

영화 '다음 소희' 형사 역 배우나

# “버티는 삶들에 전하는 위로죠”

### 2016년 콜센터 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죽음 모티브 “아이들은 약한 존재...갈수록 나아지는 사회 됐으면”

“다음 소희”를 찍고서 (영화 속) 소희 양과 같은 처지에 있지만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고맙더라고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2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나(29)의 큰 눈망울에서는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배우나는 눈물을 닦아내고서야 말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영화 '다음 소희'는 2016년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을 바탕으로 둔 작품이다. 부당대우와 감정노동에 흑사당하던 여고생 소희는 심리적으로 고립돼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배우나는 극 중에서 여고생 사망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는 형사 유진을 연기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인간관계도 서툰 유진이지만 여고생의 황망한 죽음 앞에 감정이 온전할 리가 없다.

그는 ‘학생 하나 죽은 게 대수냐’는 형사과정 말에 주먹을 날리고, ‘적당히 합시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장학사에게 분노를 폭발한다. 배우나는 작품 촬영 때 차올랐던 감정 탓인지 눈물로 상기된 표정을 애써 가라앉히며 영화에 참여한 이유를 또박또박 설명했다.

“우리 때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아이들 얘기, 이런 문제를 다룬 얘기에는 꼭 참여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약하고 모르니까요.”

‘다음 소희’는 정주리 감독이 ‘도희야’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도희야’ 이후 연력이 끊기다시피 했던 정 감독은 어느 날 ‘다음 소희’의 시나리오를 들고 배우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들고 온 시나리오를 처음 읽어보고서 작품의 소재, 주제 의식 등에 모두 매료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보통 배우는 촬영과정에만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소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님과 현장을 지켰다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감독님은 고집스럽고, 이런 점이 믿음직스러워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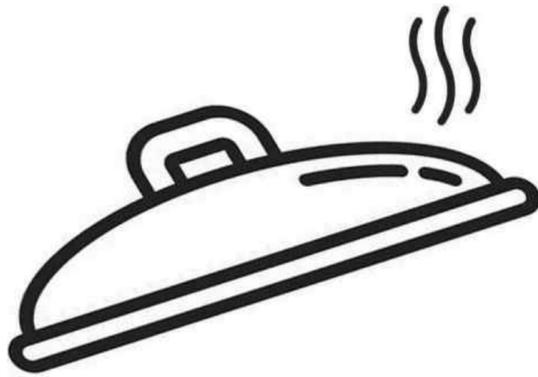


배우나는 주인공 소희로 분한 신에 김시은을 두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다음 소희’는 소희의 죽음과 사망사건의 원인을 찾아가는 형사 유진의 수사가 1·2부 방식으로 나눠 전개된다. 이런 탓에 두 배우는 극 중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배우나는 현장에서 연기하는 김시은을 유심히 지켜보고, 카메라 앞에서 떨림 없이 감정몰입을 하는 후배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처음 찍는 친구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구나, 당차구나’ 했어요. 그 친구 연기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이 있었지요. 이 영화 좋다고 말이지요.”

1998년 모델로 데뷔한 배우나는 그간 ‘복수는 나의 것’(2002), ‘괴물’(2006), ‘코리아’(2012), ‘킹덤’(2018), ‘브로커’(2022) 등 수십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연합뉴스



## ‘한식 예능’ 세계인 입맛 저격

### ‘한국인의 식판’·‘서진이네’ 등 해외서 K-급식·분식 선보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식을 앞세워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예능들이 잇따라 나온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는 이연복 셰프가 한식 급식을 만드는 ‘한국인의 식판’을 3월, tvN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분식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진이네’를 이달 24일 선보인다. ‘한국인의 식판’은 해외 명문 학교, 글로벌 기업, 프로 스포츠 구단 등 급식이 필요한 세계 곳곳을 찾아가 한식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연복 셰프를 비롯해 김치 사업을 하는 방송인 홍진경, 영상사 김민지, 개그맨 허경환, 남창희, 그룹 몬스타엑스의 주현이 급식 군단으로 출연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포맷으로 인기를 끌었던 예능 ‘짠내투어’를 만든 손창우 CP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급식 군단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단체식을 만든다.

손 CP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국 고등학교 급식을 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K-급식’이라며 훌륭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K-급식을 실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 “해외에서 적게는 100인분, 많게는 300인분에 달하는 단체식을 만든다는 점이 기존 한식 해외 예능과는 차별화된 포인트”라며 “전문 영양사와 함께 K-급식의 정석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tvN은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예능 ‘윤식당’의 스피노프 ‘서진이네’를 선보인다.

배우 이서진이 ‘윤식당’ 멤버 정유미, 박서준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 ‘윤식당’에서 주방을 담당하던 윤여정이 빠진 대신 ‘월드스타’ 뷔가 합류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최우석이 새 멤버로 활약한다.

티저 영상을 보면 ‘서진이네’는 김밥, 라면, 떡볶이, 핫도그 등을 판매한다.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을 팔던 ‘윤식당’보다는 가벼운 메뉴들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서진이네’ 제작진은 “한식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생각”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이 커지고 있



tvN '서진이네'

는 점을 방송에 담고 싶었다.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스텝없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나 한식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서진이네’에는 수억 수천의 경영철학이 있다. ‘윤식당’ 때와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며 “화려한 스타들이 잠시나마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황진이 대중문화평론가는 “어떤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 그 나라의 음식도 문화 체험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은 한류와 더불어 지속하기 좋은 콘텐츠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예능은 유명 연예인들이 부엌에서 칼질하고,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재미도 있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복귀설 황당” 심은하, 제작사 고발

### 바이포엠 “계약금 지급” 허위사실 제보...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바이포엠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제보를 받고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처음으로 쓴 모스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

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스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달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마치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 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를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서울오픈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 심은하.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뻐지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라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7(영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